

〈書 評〉

В.П. Макаренко著, 『Бюрократия и сталинизм』, Ростов-на-Дону:  
Издательство Ростов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1989, 360면

하 용 출

에레스트로이카 이후 소련 학계에서 스탈린주의와 스탈린 체제에 대한 재평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흥미있는 질문이다. 그 동안 신문과 잡지에서 정치적 논쟁과 맞물려 스탈린주의의 성격에 대한 단편적 논란은 무성히 이루어져 왔으나 체계적 연구는 눈에 띄지 않았다.<sup>1)</sup>

V.P. Makarenko 교수의 “관료제와 스탈린주의”는 스탈린주의에 대한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데서 우선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Makarenko 교수는 이번의 저술 이외에도 이미 Анализ бюрократии классов-анталонистического общества в ранних работах Карла Маркса (1985), Бюрократия и государство (1987), Вера, власть и бюрократия (1988) 등의 저서를 내놓은 바 있다.

과거의 저술들이 나타내주듯 Makarenko 교수의 일관된 주제는 관료주의 계도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소련정치의 핵심적 문제를 관료지배에 두고 이것이 소련의 정치, 사회, 문화, 외교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스탈린체제와 관련, 스탈린 통치 기간동안 나타난 소련 관료제의 특징과 운영 방법 등이 소련 시민들에게 끼친 정치심리적 영향 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본서는 모두 서문 결론을 제외한 2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의 내용을 일일이 소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뿐더러 불필요한 일일 것이다. 다만 주요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1) A. Tsipko와 A. Butenko의 스탈린주의의 기원과 성격에 관한 논쟁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Tsipko의 논문, “Istoki Stalinizma,” *Nauka i zhizn* 1988, no. 11. 과 Butenko의 논문, “Vnoven li Karl Marks v kazarmennom sotsializme?” *Filosofskie nauki*, 1989, no. 4.

스탈린 체제가 야기한 관료체제의 원형은 모스크바 국가형성과정의 산물이며 이 과정에서 급격한 국가의 개입이 나타났다. 동시에 러시아 관료체제는 독특한 러시아적 관료상——무능하고 권력만능적이며, 원시적 뇌물이 통하는——을 낳았다.

국가의 경제 및 사회에 대한 개입의 증대에 따라 발생한 정책적 오류와 결점은 관료와 일반 개인들에게 무엇을 해야하는가의 직극적 질문에 대한 관심보다 누가 잘못했는가의 문제에 더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

Makarenko 교수는 이러한 현상이 소련사회에 아직도——네레스트로이카의 전개에도 불구하고——상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스탈린의 역할을 평가하는 데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말한다.

스탈린에 대한 개인 숭배가 절정에 이르러서는 그의 사소한 언급이 창조적인 압시즘에 대한 공헌으로 인정되었다. 맑스가 오래 전 지적한대로 정치의 유일한 기준은 성공이다. 그러나 스탈린의 경우 그가 죽은 해인 1953년 소련의 1인당 곡물 생산은 1913년의 그것보다 낮았다. 스탈린 체제가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Makarenko는 수천만의 사람들이 새로운 국가 조직의 충실한 노예가 된 사실로 설명하는 듯하다. 그 중 수백만은 국가조직의 운용자가 되었고 이들은 과거 러시아 관리와 마찬가지로 공금을 갈취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당과 국가조직은 태러 집행자의 총복으로 전락되었다.

소련 사회에 반항세력이 전부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짜르 정부 하에서도 목숨을 내걸며 반항했던 사람들이 지도자에 대해 그렇게도 무력했던가? 왜 모든 사람들이 긴 잃은 양처럼 독재자의 칼 아래 자신들을 굴종시켰던가? 모든 소련 사람들이 해방할 수 없었던 스탈린 개인숭배의 성공적 구축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첫째, 1930년 이래 철학과 사회과학 분야에 이후 수십년간 소련의 철학과 사회 사상을 독점하는 젊은 출세주의자, 밀고자, 교양 없는 그룹이 출현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창조적 압시즘에 사형선고를 집행한 사람들이었다.

둘째, 10월 혁명은 실제 사회주의의 건설과 강화를 가져 온 것이 아니라 국가와 그에 관련된 관료체제의 증강과 확대를 가져 왔다. 이는 스탈린 체제가 짜르 체제보다 억압에 있어 더욱 효과적이었음을 말한다.

세계, 스탈린은 가족을 形吏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병적인 사회를 구축하였다. 적나라한 힘이 지배하는 역사에 유례없는 사회를 건설했다. 스탈린 앞에 모든 사람들이 경멸할 야칭꾼으로 전락하였다. 인간 이성의 기능은 파멸되었다. 모든 사람들은 현상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그들의 일상적 삶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구속을 감지하면서 행동해야 했다. 스탈린주의는 새로운 소비에트인을 창조했다. 그것은 정직하고 성실한 거짓말장이였다. 그들은 언제나 자발적으로 지적 및 도덕적 자살을 간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스탈린 체제의 경제 구조는 낭비와 행정적 정태성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는 오늘까지 큰 변화 없이 존속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출세를 원하는 사람들의 일반적 성향은 권력에 대한 농민적인 숭배가 행동과 의식에 배어 있으며 이들은 수단을 가리지 않고 권력에 참가하려 한다. 권력 안에서 그들은 상사에게 억눌리지만 부하들에게는 엄격하다. 스탈린은 이들의 '신'이었으며 만능의 화신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스탈린은 이반의 공포정치와 피터대제를 능가하는 사회의 기능과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새로운 관료계급(caste)을 만들어 냈다. 이들은 노동자계급 앞에 아무런 의무감도 느끼지 않았으며 국민이나 맑스-레닌주의의 이데올로기적 구속도 받지 않았다.

Makarenko 교수의 주장을 요약한다면 스탈린체제를 뒷받침했던 핵심적인 구조는 방대한 관료체제였으며 소련의 관료체제는 Weber식의 관료제라기보다 스탈린에 의해 움직이는 정치화된 관료체제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료체제가 소련국민의 정치의식에 끼친 영향은 아주 심각한 것이다. 권력과 권위에 대한 자발적 및 예상적 대응과 위축, 소외, 도덕적 이중성, 현실과 이상과의 격차에서 오는 항상적 불만 등이 그것이다.

Makarenko의 이러한 서술은 그 자체로서는 그다지 새로운 것은 아니다. 다만 그는 스탈린 체제를 설명하기 위해 역사적으로는 짜르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관료제를 고찰하면서 동시에 맑스스트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즉 그는 소련 관료제의 근원을 사유재산의 국유화와 이에 따라 나타난 사회 분업의 양태로 파악하려 한다. 이에 따라 국유화에 따른 시민들의 자유의 근거의 박탈과 이를 기초한 관료들의 광범한 통제 가능성에서 관료화의 근원을 설명하고 있다.

Makarenko의 또 하나의 장점은 스탈린주의 이데올로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면서 관료계를 고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서방의 스탈린시대 연구는 엘리트 중심적이고 따라서 정치중심적이며 러시아 역사와 소련 역사와의 단절 위에서 고찰되어 왔다. Makarenko는 이러한 서구의 스탈린 연구 동향에 새로운 측면을 더해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가 소련의 스탈린 연구가 스탈린주의에 너무 최면이 걸려있다고 비판한 것은 흥미 있는 점이다.<sup>2)</sup> 동시에 저자는 단순히 사회적 측면을 강조한 것에서 나아가 서구의 스탈린 연구에서 크게 간과되었던 정치·심리적 영향을 부각시킴으로써 기존 연구의 허점을 보완하고 있다. 특히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소련에서의 시민사회 존재 여부에 관해 Makarenko의 분석은 상당히 큰 도움을 준다. 즉 관료체제 하에서 소련 국민들이 얼마나 국가에 의존된 인개의 무의미한 존재로 변모되었는가에 대해 실득력있는 논의를 전개하였다.<sup>3)</sup>

그의 입장을 연장시켜 본다면 소련 사회가 공식적으로 언급되는 대로 노동자 계급——사무직과 공장노동자, 집단농장의 노동자——등의 경제적 분류보다는 관료 계급과의 거리의 원·근을 중심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료조직이 사회 문화에 끼친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전무한 상태여서 저자가 이 분야에 주는 함축성은 아주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과 공헌에도 불구하고 본서는 다음과 같은 약점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본서는 그 많은 주장과 그 주장이 주는 함축성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주장들이 많은 경우 구체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으며 한갓 주장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스탈린 체제가 끼친 정치심리적 영향에 치중한 나머지 스탈린 체제의 구축 과정과 시대 구분이 명확치 않고 스탈린 시대에 이룩된 산업화의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 이는 대부분 서구의 경제학적 논쟁과 큰 대조를 보인다. 비록 스탈린 체제가 끼친 악영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스탈린의 초기, 중기, 말기마다 그 상황은 크게 달랐기 때문에 관료의 성격도 달리 분석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끝으로 Makarenko는 탐시증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는 그의 탐시스트적 관료체제에 대한 정의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관료화 현상은 단순히

2) 최근 이에 대한 반론이 나오고 있음은 주목할만하다. Sheila Fitzpatrick, "New Perspectives on Stalinism," *The Russian Review*, vol. 45, 1986, pp. 357-373.

3) 이와 관련 Makarenko는 스탈린 사후 소련사회를 "탈스탈린화"로 규정하는데 반대하여 "後-스탈린 체제(post-stalinism)"로 보고 있는 것은 흥미롭다.

소유권의 문제뿐 아니라 근대 산업사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어서 소련적 특징만을 너무 강조해서는 안된다. 동시에 맑시즘의 자체 수정 능력을 아직 인정하고 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탈 공산주의 현상을 이해하는 데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과거의 유산을 어떻게 청산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본서는 케레스트로이카 이후 나타난 스탈린주의 해석이라는 일반적 사실과, 그의 예리한 통찰력의 분석력을 통해 보여준 소련 사회의 특징은 소련 연구자들에게 큰 시사점을 준다고 할 것이다.